

다른 도시의, 다른 도시에 의한,
다른 도시를 위한 투쟁
『반란의 도시』(에이도스, 2014)

김현우*



“도시의 공기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치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203쪽).

데이비드 하비는 “도시의 공기가 자유롭게 한다”는 중세 자치도시의 말을 빌려 도시에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가 제목으로 삼은 ‘반란의 도시(rebel cities)’란 지배계급에 대한 반란의 근원지로서의 도시이기도 하고, 새로운 도시권을 위해 새로운 도시민과 함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nuovo90@hanmail.net)

게하는 반란이기도 하며, 어쩌면 스스로 반란하는 주체가 되는 도시들을 의미하기도 할 것 같다.

하비는 이제까지 여러 저서들을 통해 즐기치게 재생산과 ‘건조 환경’을 둘러싼 투쟁의 장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고, 도시가 포스트 모더니티 현상부터 사회정의 실현의 무대로서 어떻게 가능해지는 공간인지를 밝혀왔다. 이 책 역시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가볍고 자유로운 문투로, 그러나 굵직한 주제들을 거침없이 탐색한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개방적이지만 훨씬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본주의는 지금의 도시들을 만들고 성장시켰지만 또한 자본 축적의 모델에 따라 도시들에 형태와 성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애초에 도시는 어떤 계급과 집단에게는 권리 제약과 희생을 불가피하게 감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앙리 르페브르가 이야기한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파리 코뮌의 투사들부터 최근 세계의 오쿠파이 참가자들이 경험하고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하비가 르페브르를 통해 다시 이야기하는 싶은 것은 권리의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실은 제임스 오코너 등이 이야기한 ‘자본주의의 2차 모순’, 즉 생산과 생산 환경 사이의 모순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다.

오스만과 로버트 모제스가 각각 개조한 파리와 뉴욕, 여기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주민들과 소수자들, 이들의 대변자가 된 제인 제이콥스 같은 도시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삶과 이웃을 지키고자 일어난 것이었으나 동시에 자본주의적 도시화 방식에 대항한 선구적인 투쟁을 벌인 것이기도 했다. 이 투쟁들은 교외화, 부동산 버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들을 매개로 전개되었고, 개별 자본과 또 자본의 원활한 기능을 바라는 정부, 정치인들, 계획가들은 그들에 저항하는 반란들을 소화하는 술수들을 개발했다. 이 익숙한 도시 현상들에서 하비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약탈의 부수적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전개의 주요 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며 현대의 재생산과 착취도 도시에서 가장 광범하고 전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마르크스주의 이

론가들은 거시경제적인 진정한 핵심이 어딘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도시 연구는 한 특수 분야 정도로 치부해왔다(75쪽).

하지만 도시 공간과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과 재생산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과 앞으로의 위기들을 파악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대부분이 자본의 운동법칙에 대한 일반 이론 속에서 최근의 위기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윤율 저하경향이나 과소소비설의 표현이라며 갑론을박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물적 투자와 의제자본의 작용은 결코 경기순환의 부수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핵심의 일부다. 게다가 빚을 잔뜩 지고 집을 산 주택소유자들은 파업을 벌이지 않는다는 1930년대의 속담처럼, 이 과정은 경제 주체의 행동 양식까지 규정한다. 글로벌 위기에 중국의 거대한 주택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떤 패턴으로 엮이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에 엄청난 영향을 가질 것이다.

여기서 하비는 『자본의 한계』 이래 그의 일관된 관심 중 하나인 마르크스주의의 확장과 갱신의 문제로 들어간다. 우선 자본주의 체제를 공장에 국한되지 않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더욱 넓은 사회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계급적 착취의 개념을 확장하고, 잉여가치 실현의 공간과 과정으로서의 도시에 주목하지는 말이다. 다음으로, 변혁과 대안의 주체를 공장 프롤레타리아로 제한되지 않는 도시민으로 바꾸어보는 것, 그리고 대안적 도시권 요구하기와 대안적 도시 만들기라는 전략을 사회주의 전략의 중심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다. 공장 프롤레타리아트를 넘어 나날이 늘어가는 수많은 미조직 도시생산자로 개념을 바꾸어 그들 고유의 혁명 능력과 역량을 탐구하자(223쪽)는 것인데, 프레카리아트 개념으로 바꾸어 읽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제1세계와 제3세계를 막론하고 도시에서의 반란들은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자생적이고 파편적인 반란 자체가 대안일 수는 없다. 스탈린주의나 사민주의 모두에서 시도되었던 국가주의적 해법들도 자본의 권력에 저항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노동자 자주관리

나 공동체 관리, 연대의 경제 등 다양한 갈래의 대항운동이 국가의 억압적 권력이 사멸하도록 야금야금 잠식해나가는 ‘흰개미이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215쪽). 하지만 이 역시 어느 하나가 대안일 수는 없으며, 지배 권력은 금세 흰개미를 퇴치할 방제업자를 불러낼 것이다.

하비 역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짜임새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흰개미 전술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와 결합되는 ‘대안적 형태의 영토적 거버넌스’를 좌파가 강구하고 시도하는 것이 유력한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역 차원의 노동자 관리와 글로벌 차원의 조정이라는 중대명령 사이의 변증법을 좌파는 질문하기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노동 중심 투쟁과 공동체 중심 투쟁의 구분은 사라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구별도 재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도 직장이나 산업을 조직하는 관점은 물론 도시를 조직하는 관점에서 사고해야 한다는 빌 블레처와 페르난도 가파신의 주장(231쪽)은 힌트가 된다.

결국 좌파에게 도시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도시를 사회주의적 정치체로 재건설하고 재창조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도시권을 제대로 실현하고 향유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로의 정치적·경제적·공간적 이행이라는 것이다. 그람시가 대안 사회와 세력의 원리로 제시한 ‘역사적 블록’이 하비에 의해 다른 도시권, 다른 도시민, 다른 도시라는 공간지리적 실체와 관계로 더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다.